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학에 대한 일반적리해

허 철 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조선어를 배우려는 열의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그것이 어떤 세부분야들로 이루어져있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학은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육학의 한 분야이다.

교육학은 교육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 교육의 사명과 임무, 교육제도와 교육체제, 교육원칙과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교육수단, 교육행정 등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시기 교육학이 구체적인 심리분야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을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교육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는 새 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교육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침투성이 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잘 반영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학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외국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조선어를 자기의 모국어를 배우듯이 쉽게 배울수 있게 하며 조선어를 더 빨리, 더 질적으로 잘 배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명을 주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학은 크게 내용과 구성의 측면에서 갈라볼수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학은 내용에서 조선어기능교육론과 조선어지식교육론, 조선어문화교육론으로 갈라볼수 있다.

조선어기능교육론에서는 조선어의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의 4가지 기능을 어떻게 가르쳐주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여기에서 조선어듣기와 조선어읽기는 조선어에 대한 리해의 측면에 해당되고 조선어 말하기와 조선어쓰기는 조선어에 대한 표현의 측면에 해당된다. 이 4가지 교육은 다 자기 식의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조선어기능교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기능적인 측면들을 가리키는것이기때문에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어지식교육론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소유하여야 할 조선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즉 조선어발음토대를 습득시키고 문자표기를 위한 조선어음운 및 문자에 대한 교육과 조선어형태론, 조선어문장론, 조선

어의미론에 대한 언어지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조선어문화교육론에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민속, 문학과 예술, 문화유산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언어는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민족문화와 민족어는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는데 민족문화의 형식은 민족어에 의해서도 특징지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어교육은 해당 민족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고도 말할수 있기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학은 구성에서 조선어교육분야의 측면과 조선어학습자의 언어소유정도 그리고 조선어학습자의 특성과 나이, 언어사용지역 등에 따라 갈라볼수 있다.

우선 조선어교육을 교육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어교육강령작성방법론과 조선어교육방법론, 조선어교육평가론, 조선어교재론, 조선어교수자론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조선어교육강령을 작성하는것은 조선어교육을 진행하는데서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어교육강령은 조선어교육사업의 실제적인 법적기초이며 조선어교수자들이 교수활동에서 의거하여야 할 기본문건이다. 조선어교수자들이 조선어학습자들에 대한 교수를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어교육강령을 잘 작성하고 모든 교수사업을 철저히 그 요구대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조선어교육강령은 조선어교육을 위한 과정안과 그에 준하여 가르치게 될 과목들의 교수요강들로 이루어진다.

조선어교육을 위한 과정안은 조선어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선어학습자들에게 가르치게 될 학과목구성과 매 학년별배렬, 학과목에 대한 시간배정과 교수형태 등을 규정한 국가적문건으로서 교수요강과 함께 조선어교육과정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조선어교육강령의 한 구성부분이다.

조선어교육을 위한 학과목들의 교수요강은 해당 학과목들의 교수과정조직과 교수내용 및 교수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구성부분이다.

오늘날 조선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더 다종다양해지고있는것만큼 어떤 형의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 하는 목적부터 바로세우고 과정안과 그에 따르는 교수요강들을 작성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선어교육방법론은 조선어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지식을 주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나온 외국어교수법들가운데는 문법번역식교수법, 청각구두식교수법, 의사소통식교수법, 침묵식교수법, 암시적교수법, 전신반응교수법, 자연교수법 등이 있는데 매 교수법에는 자기 식의 우점과 부족점이 있다. 이로부터 교수자들이 어떤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어떻게 교육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오늘날 외국어교육이 지난 시기의 교수자중심으로부터 학습자중심으로 넘어가고있으며 교수자는 수업활동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도달목표를 성취할수 있도록 능숙한 조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어교육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조선어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조선어교수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여 부단히 연구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선어교육평가론은 조선어교수사업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도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조선어교수를 과학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여기에서는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언어숙련정도와 언어기능능력, 문법능력, 어휘사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선어교수의 효과성정도를 알아보고 조선어교수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족점을 바로잡을수 있게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조선어교재론은 조선어교수사업에 리용하게 될 교재를 어떻게 작성할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조선어교육용기본어휘선정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조선어교육용문법을 확정하며 학생들의 매 단계별에 따르는 도달목표의 선정 등 조선어교재집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중에서도 조선어교육용기본어휘선정을 잘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조선어교육용기본어휘를 정확히 확정하여야 매 단계에서 가르쳐주게 될 어휘교육의 목표가 설정될수 있고 그에 따라 매 단계별교재들이 집필되며 교육의 순차성과 계승성도 보장될수 있기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조선어교육용기본어휘선정이 없이 교과서나 참고서집필자들이 주관적으로 교육용본문을 집필하여 조선어교육을 진행한다면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실지 언어생활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까지도 학습해야 하는 고충을 주게 된다. 특히 교수자들이 기성본문(이미 출판되어 나온 영화나 소설, 시, 수필, 단상 등)을 그대로 교육용본문에 넣어 교수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작가들이 자기의 개성적인 문체를 살리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의 영향을 피할수 없다. 그러므로 기성본문을 조선어교재에 선택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등급에서 취급해야 하겠는가를 심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리해하기 쉽게 언어표현을 간결하게 해주어야 한다.

조선어교수자론은 조선어교수를 직접적으로 맡아 진행할 조선어교수자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수를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이다.

조선어교육은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조선어소유정도에 따라 초급단계와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가를수 있으며 이것을 다시 매 단계별로 높은 수준(상)과 중간수준(중), 낮은 수준(하)으로 구분하여 모두 9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그리고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언어사용지역에 따라 로씨야어사용지역, 중국어사용지역, 영어사용지역, 웰남어사용지역, 몽골어사용지역, 일본어사용지역, 도이쉴란드어사용지역, 아랍어사용지역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언어사용지역에 따라 구분을 하는 목적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어와 조선어, 해당 민족의 문화와 조선문화와의 대조분석을 진행하여 그것을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다 있다.

실례로 중국어를 교제수단으로 하고있는 외국인들의 모국어는 고립어에 속하기때문에 주로 보조어와 어순에 의하여 문법적관계를 나타내며 글자는 뜻글자이다.

그러나 조선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에 속하며 주로 형태변화에 의하여 문법적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선어의 글자는 자모글자이지만 쓸 때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 음절을 단위로 묶어서 표기하는 독특한 글자이다. 이로부터 조선어를 배우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조선어수준이 일정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자기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는 교육대상이 어떤 언어사용지역에 속하여있는가 하는 측면을 중시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특성에 따라 해외동포학생과 외국인학생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이밖에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나이도 조선어를 소유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볼수 있다.

우의 세부분야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깊이 련관되어있다.

실례로 초급수준의 성인에 대한 조선어듣기교육은 이 단계에 맞는 조선어교수목표와 조선어교재, 조선어교수방법, 조선어교육평가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조선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편의와 수준에 맞게 조선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의 우수성을 적극 빛내여야 할것이다.